

요약

일본 내 난임 관련 검사나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부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난임 시술은 고액으로 시술자의 경제적 부담이 큼. 이에 일본 정부는 2022년 4월부터 인공수정, 체외수정 및 미세수정을 공적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민영보험으로는 2016년 일본생명이 업계 최초로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을 출시했으며, 2024년 미쓰이스미토모보험은 냉동보관 중인 난자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냉동난자보험을 출시함

- 일본은 고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 평균 출산연령 또한 증가하고 있어 난임 관련 검사나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부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평균 출산연령은 2002년 29.7세, 2012년 30.8세, 그리고 2022년에는 31.5세까지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32.1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¹⁾
 - 2022년 기준 세계 평균 출산연령은 28.2세, 아시아 평균 28.2세로 일본의 평균 출산연령은 이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난임과 관련된 검사 또는 치료 경험이 있는 부부의 비율은 2015년 18.2%에서 2021년 22.7%로 증가했으며, 부부 4.4쌍 중 1쌍이 관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²⁾
-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난임 시술은 비용이 고액인 경우가 많아 난임 부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경제적 요인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³⁾
 - 2020년 기준 인공수정 비용은 1회 평균 약 3만 엔, 체외수정과 미세수정은 약 50만 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체외수정이나 미세수정의 경우 의료비 총액이 100만 엔 이상인 비율이 50%를 넘었고, 30%는 200만 엔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19.6%는 난임 치료를 받을 때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었으며, 18.7%는 같은 이유로 원하는 횟수의 치료를 받지 못했고 11.7%는 원하는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함

1) United Nations(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2)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2021), "第16回出生動向基本調査(結婚と出産に関する全国調査)"

3) 最終報告書(2021), "不妊治療の実態に関する調査研究"

- 이에 일본 정부는 2022년 4월부터 인공수정, 체외수정 및 미세수정을 공적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난임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⁴⁾
 - 기존 일본의 공적보험은 치료와 질병의 관계가 명확하고 치료의 유효성·안전성 등이 확립된 경우 보험적용을 지원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 시행하는 체외수정 등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음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 보험의 대상은 치료 시작 시점의 연령이 43세 미만인 여성이며, 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 비율이 치료비용의 30%로 제한되어 경제적 부담이 감소함
 - 체외수정이나 미세수정은 여성의 연령에 따라 40세 미만인 경우 자녀 1명당 6회, 40~42세인 경우 자녀 1명당 3회의 횟수 제한이 있음

- 민영보험으로는 2016년 일본생명이 업계 최초로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출시함⁵⁾
 - 2016년 4월 보험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난임 치료 관련 보험 인수 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일본생명은 최초로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고 출산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출시함
 - 금융청은 고액의 비용이 수반되는 난임 치료에 대한 보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보험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보험회사가 난임 치료를 위한 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⁶⁾
 - 동 보험은 16~40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 가입자가 보험기간 중 체외수정 또는 미세수정과 같은 특정 난임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
 - 최대 12회까지 보험금을 지원하며, 1~6회까지는 회당 5만 엔, 7~12회까지는 회당 10만 엔을 지급함

- 최근 미쓰이스미토모보험은 냉동보관 중인 난자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냉동난자보험상품을 출시함⁷⁾
 - 일본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난자를 냉동한 사례의 수는 2019년 723건, 2020년 894건, 2021년 1,103건으로 난자 냉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⁸⁾
 - 난자를 채취하고 냉동보관하는 데는 평균 30~100만 엔으로 고액의 비용이 수반되지만, 냉동보관 중인 난자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없었음
 - 이에 미쓰이스미토모보험은 2024년 2월 업계 최초로 냉동난자보험을 출시했으며, 냉동보관 중인 난자에 문제가 생겨 수정이 되지 않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채취와 냉동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함
 - 보험 대상은 난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LIFEBANK 난자은행을 이용 중인 고객이며, 난자 채취 당시의 연령이 39세 이상인 경우는 제외됨

4) 厚生労働省(2022), “不妊治療に関する支援について”

5) 日本生命保険相互会社(2016), “ニッセイ出産サポート 給付金付3大疾病保障保険‘ChouChouシュシュ!’”

6) 金融庁(2016. 11), “金融庁の1年(平成27事務年度版)”

7) 三井住友海上(2024. 2. 21), “凍結卵子専用保険の提供開始”

8) JSOG(2023), “2021年 体外受精・胚移植等の臨床実施成績”